

# 탈단백우골과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용한 치조제 보존술

박보현\*, 권영혁, 박준봉, 허 익, 정종혁  
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치주과학 교실

## 서론

발치 후 치조골의 흡수로 인하여 잔존 치조제의 폭경과 높이가 감소한다는 연구 보고가 되어 왔다. 따라서 발치 후 대개의 경우 치조제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발치 후 가공치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고자 할 때 이런 치조제의 결손은 구강위생관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 문제를 유발하여 환자의 만족도 및 보철물의 수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치와 동시에 치조제를 보존하는 여러 가지 수술방법이 소개되었다. 그 중에서 골이식재와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용한 술식은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발치 후 즉시 탈단백우골과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용하여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치험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 수술방법

#12은 외상성 교합을 동반한 급진성 치주염으로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를 계획하였고,

이후 #11~#13까지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전측 판막을 형성하고, **perioste**를 이용하여 비외상성으로 발치를 하였으며, 발치와의 모든 연조직을 철저히 소파한 후 발치와에 탈단백 우골을 충전하였다. 동측 구개부에서 상피하 결합조직을 채득하여 골이식재 위에 위치시킨 후 봉합하였다. 이후 6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 결론

#12의 치조제 보존술을 통하여 심미적인 형태의 고정성 보철물 장착이 가능하였고, 환자는 웃음을 다시 찾았다. 결론적으로 탈단백우골과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용한 치조제 보존술은 수술의 예견성이 높으며, 심미적 보철물 제작에도 유리하고, 주변 조직과의 색조 조화도 우수하였다.